

한국포장기술연구소
Slitting · Winding 세미나 개최
 신재료 Slitter 기술과 Trouble 대책

한국포장기술연구소(소장 김영호)가 지난 달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팔래스호텔 로얄볼룸에서 해외전문가 초청 Slitting · Winding 세미나를 개최했다.

이번 강연은 슬리터의 분류, 슬리터의 기계구성, 슬리터 앞 장치, 슬리팅 기술, 권취구동(장력), 권취 접압방식과 제어, 권취축수, 권취 제품의 품질과 검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.

그동안 코팅, 라미네이팅, 프린팅 등의 가공 기술을 근간으로 일반 제품부터 고부가 제품까

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컨버팅 업계와 이들 제품의 소재가 되는 플라스틱 필름, 호일, 제지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Slitting · Winding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.

그러나 최근, 고기능성과 고가의 신재료인 전자재료나 광학재료 생산이 급증함에 따라 최종 제품 상태의 완벽화, 전과정 중 최후 공정으로서 제품의 로스 방지가 지상과제로 대두돼 Slitting · Winding의 기술은 이들 제품의 제조 핵심기술과 같이 인식되고 또한 그 기술도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.

고기능성 신재료 메이커, 슬리터 제작자, 필름, 박, 종이 · 판지 제조업체 및 컨버팅 업체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中村 씨가 강사로 초빙됐다.

中村 隆(Takashi Nakamuar)는 2006년



▲ 한국포장기술연구소 Slitting · Winding 세미나 개최